

光日春秋



오덕성
우송대 총장

‘우물쭈물하다 내 이빨 줄 알았다.’ 아일랜드 출신 영국 극작가이자 소설가로 192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조지 버너드 쇼(George Bernard Shaw)의 묘비에 새겨진 글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면 이 문구가 자주 떠오르곤 한다. 2024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나는 올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본다. ‘새해에 세운 목표를 되새기고 열심히 살아왔는지’,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따뜻한 일 년을 보냈는지’, ‘후회되는 일은 없는지’ 등등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 올해 초에 받은 무릎 수술은 필자의 일 년 계획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외 출장 일정을 소화하던 중 다소 무리하여 무릎의 상태가 나빠졌고, 걷기 힘든 상황이 되어 일정을 다 소화하지 못한 채 급하게 귀국하였다. 그 발단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네스코 지원사업 수행자 스리랑카에서 방문했는데 교통사고로 무릎에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완치하지 못한 무릎은 20년 간의 지속적인 충격으로 결국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기고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필자는 땅끝 해남에서 태어나 칠십여 년의 인생을 전라도 사람으로 지내오며 최근 들어 ‘추락하는 광주·전남의 현실’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글을 쓴다. 과거 농경시대에 광주와 전남은 비옥한 토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려 왔으나, 1960년 이후 산업화에서 우리 지역이 소외되면서 광주·전남은 지방 인구 소멸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 인구는 2014년 14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7000여 명의 청년들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가고 있으며, 전남지역 또한 190만 명에서 2024년 179만 명으로 매년 6000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등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광주와 전남이 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의 지역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이 거론된 것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공항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 은교회 담임목사

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할 기회가 생기면 되도록 교회 주변의 식당들을 이용한다. 그래서 자주 가는 식당의 주인이나 종업원들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본다. 한 십 오년 전부터 자주 가는 빠다귀 해장국집이 있다. 몇 년간은 타지에 있었기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 예전의 먹었던 그 맛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좋았다. 간판은 낡고 색이 밟바래 있었지만 깔끔하고 진한 국물에 푹 삶아 부드러운 뽕배살이 푸짐하고 맛나다. 거기에 장시간 삶아 국물이 배어 있는 시래기는 그 맛이 정말 일품이다. 반찬은 딱 세 가지 나오는데 각각, 약간 심심하고 시원한 열무 신김치와 아삭 고추다. 그런데 을 초에는 평소 먹던 맛과 다르게 느껴졌다. 각두기와 열무 신김치도 지금까지 먹던 그 맛이 아니었다. 맛이 변했다 생각하고 몇 달은 그 식당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에 먹던 그 맛이 생각이나 오랜만에 찾아 갔는데 이상하게 예전에 먹던 맛이 돌아와 있었다.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알고 싶어 종업원에게 물어보

한 해의 끝, 나에게 하고 싶은 질문

수술을 받고 2주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느낀 점은 ‘건강도 때가 있다’라는 것이다. 아플 때 정신 차리고 문제가 된 무릎을 잘 보살피면서 서두르지 말고 살아야 했는데, 내 몸은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살아왔다. 나를 돌보기보다 급한 일에 쫓겨서 서두르다가 몸도 나빠지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당시 기억에 남는 일은 병원 옆 제과점에서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었다.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병상에만 누워 있다가 목발을 짚고 옆 건물에 있는 제과점으로 가서 아내와 커피 한잔을 마실 수 있었다 것이 참 행복했다. 하지만 무릎이 많이 회복되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되면서 돌아가 급한 일에 쫓기며 소중하던 일은 미루고 있는 예전의 내 모습으로 돌아왔다. ‘시간의 흐름은 사건의 축적으로 인식한다’라는 어느 뇌과학자의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만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텐데 그런 시간은 늘 급한 일에 밀려 소홀히 여기고 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한정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요한 일, 급한 일, 꾸준히 해야 할 일’ 등 적어도 세 부류로 구분하여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이 미뤄지지 않도록 삶의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매일 바쁘게 흘러가는 삶에서 잠시 멈춰서서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알아차리는 나만의 시간은 중요하다. 매일 사람들과 부딪치며 살아가는 삶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되새기게 된다.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같

은 소중한 사람들과 연락하며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갖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인생의 목표를 ‘짧고 굵게 사는 것’이라며 매년 강조하던 필자의 친구가 있었다. 일 중심으로 살던 그 친구가 갑자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 이후, 혈색해진 모습으로 나에게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면서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짧고 굵게 사는 것’보다 지혜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말해주었다. 당시에는 그냥 웃어넘겼지만, 무릎 때문에 크게 고생을 해보고 나니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말이었다. 무릎 통증이 가끔 느껴졌지만 무시하고 바쁜 일에 몰두하면서 건강관리를 경시했던 모습이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술 후 걷기 위해 애쓰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내 몸의 소중함을 알고 친구의 말처럼 건강한 몸으로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의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어 주변도 살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재능기부, 사회봉사, 자원봉사 등 내가 속한 조직,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실천함으로써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자신이 되어야겠다. 연말연시에 우리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한다.

한 해가 끝나가고 새해를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잠시 멈추어서 지난 11개월의 삶을 되돌아보자. ‘우물쭈물하다 내 이빨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글을 묘비에 새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삶의 우선순위를 태도를 바꾸고 의미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겠다.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 절실

이 위치한 송정리 비행장이 영산강과 황룡강을 끼고 있어 일교차가 심해 봄-가을 시기에 매년 안개일수가 60일 내외로 비행기 이착륙에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남북분단 현실에 있는 우리나라는 비상상황 발생 시에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는데, 안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안 망운, 운남 지역이 공방이전 최적으로 거론되었던 것이다.

광주 군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광주 공항부지에는 반도체와 AI 그리고 이차전지 공장 등 첨단미래산업 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무안공항 주변에는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MRO 등 항공정비 산업단지와 항공 물류 허브가 조성, 광주와 전남의 인구 유출과 청년실업 문제는 해소되리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전 지구촌이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국제협약에 의해 탄소 중립과 RE100을 실천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책임과 의무가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보고인 광주와 전남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로 지역의 기업이 제품을 생산한다면 송배전에 따른 전력 손실을 막고 첩담 설치 등 관련 공사비 절감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큰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무안군이 군공항을 받아들여 지역 소멸과 인구 유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미래로 가

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광주와 전남의 상생을 위한 길 아닌가 생각한다.

며칠 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을 만났을 때 군위공항 활주로를 기존 2750m에서 3500m로 늘려 2030년 대형 항공기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변경 시공하고, 인천공항 이용객의 30%를 대구공항으로 유치하겠다는 비전과 포부를 들으면서 부러운 마음이 드는 한편, 왜 우리 지역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자성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대구와 경북은 행정통합을 위해서 양 시도가 적극 나서고 있고, 부산과 경남도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행정통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관련 논의조차 없는 현실 앞에 사·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농경시대와 아날로그 시대에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SOC 투자와 한 우물을 파는 기업이 성공했으나 AI가 지배하는 지식경제 시대에는 UAM(도심항공교통) 등 항공 운송과 물류시스템을 갖춘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이 절실한 시기이다.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각자가 처한 입장이 다를 수 있겠으나 어떤 방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등의 구체적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좋으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광주·전남이 상생 발전하고 꿈과 희망의 미래로 가는데 함께 동승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는 삶

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던 분이 몸이 좋지 않아 쉬면서 다른 분이 주방을 맡았는데 예전 맛과 달라져서 손님이 줄었다고 한다. 결국 몸을 완전히 회복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 본래 주방장이 주방을 맡고 있다고 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아주머니가 주방에 있었고 또 바뀌더니 이제는 베트남의 젊은 청년이 주방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그간 바뀌었던 아주머니들 보다 이 베트남 청년이 가장 똑같은 맛을 내고 있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간의 잠깐씩 있었던 아주머니들은 가르쳐 준대로 안하고 자기가 평소하던 방식대로 하려고 해서 맛이 달라졌다고 한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온 젊은 청년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주방장이 알려준 레시피대로 요리한다는 것이었다.

때로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은 재료이고 목사는 요리사요, 설교는 요리라고 비유하곤 한다. 듣기 좋게 포장하고 학문적인 깊이를 더한다 해도 주 재료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두북국에다 김치를 넣은 거냐? 김치국에 두부를 넣은 거냐?’ 이 말은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방영된 요리 경연대회에서 재료를 두부로 정하고 심사위원 둘이서 심사기준에 대해서 서로 말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다. 설교에서도 자칫하면 목회자가 자기 뜻을 전하기 위해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는 것을 듣게 된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내게 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조금씩 첨가하는 것은 양념과도 같다 하겠다. 이처럼 성도

들에게 있어 신앙의 근본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회신하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지키며 살아 내는 것이다. 시편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져 버린 세대이다 보니 달고 짜고 매운 것을 선호한다. 그러면서 그런 맛이 느껴지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요리는 재료의 맛과 영양을 살리고 보기 좋게 담아낸다. 음식은 눈으로 먹고 향으로 먹고 맛으로 먹는다. 그리고 만든 이의 정성과 마음은 감동까지 선사한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천년도 더 된 성경을 결코 진부하지 않은 방식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솜씨 좋은 요리사가 평범한 고기 한 덩어리와 채소 한 접시를 새로운 방식으로 요리해 내듯이 설교자들은 매주, 매일, 매해 익숙한 복음을 지루하지 않은 방식으로 선포해야 한다.

맛을 느낀 사람은 그 맛을 기억하여 다시 찾게 된다. 아무리 비싸고 귀한 음식 재료가 있더라도 재료를 다루지 못하면 맛을 망치고 만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말씀의 참 맛을 알아서 먹고 마시며 소화시켜서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레시피를 따라 사는 삶이라 하겠다. 세상의 화려함이 드러나기 보다는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들이 드러나는 삶이 가장 맛이 나는 삶이 아니겠는가.

社說

비상계엄 전모 밝히고 책임자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정치권에선 대통령 탄핵 시계가 돌기 시작했고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외교와 경제 분야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 위원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왕정을 꿈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은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불러 현안 질의를 갖고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도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환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내란죄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지적처럼 이번 비상계엄은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친위 쿠데타가 명백하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야 한다. 5·18은 1980년 비상계엄 속에 빛이진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불행한 일은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에도 확인했다.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권의 탄핵 소추 진행과는 별도로 사법 시계도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 과정부터 계엄군 투입과 이를 지시한 장관과 지휘관들의 역할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위원들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하지만 회의장을 뛰쳐 나온 위원도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친위 쿠데타가 맞다면 이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관련자들이 있는 만큼 가려내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들은 비상계엄의 전모가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돼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한전 공대 총장 공모 한 점의 의혹 없어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선임에 잡음이 무성하다. 총장 공모 지침이 변경됐는데, 변경 사항이 공모 조건을 크게 완화한 것이어서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어떠한 경우라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공모 조건을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변경시에는 해당 기관의 종사자들과 공모 지원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약속이고, 더욱이 학문의 정당한 대학 총장 선임임에는 더욱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최근 ‘제2대 총장 초빙 공모’를 내면서 초대 총장 후보자 자격 기준에 비취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대학 측은 1대 총장 공모 내용과 달리 이번 2대 총장 초빙 공모를 내면서, 후보자 자격에서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삭제했다. 1대 총장 공모에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연구 경

험을 갖추신 분’이라는 규정이 적시된 반면, 이번 총장 초빙 공모에는 해당 조항이 아예 빠진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일반 대학과 달리 관련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대학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조는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총장 공모 자격에 에너지 분야 전문성을 뒀던 것이다. 변경된 공모 자격에 에너지 분야 전문성이 빠진 것은 의혹 여부를 빼고라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 그것도 에너지특성화 공과대학의 총장을 선임하는 일이다. 잘못된 공모 지침은 지금이라도 바꿔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2024년 광주는 스포츠 열기로 뜨거웠다. KIA 타이거즈는 1위 필주를 이어가면서 ‘통합 우승’에 성공했고, 30차례 매진과 함께 125만 928명이라는 역대 최다 관중을 기록했다. 140만 인구의 광주는 야구가 열리는 날,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가 됐다. 원정팬들도 대거 광주를 찾는 등 KIA는 지역 경제도 함께 움직였다.

광주FC도 눈길 끄는 한 해를 보냈다. 올 시즌에도 재정 문제에 봉착했지만 ‘K리그1’ 잔류에 성공했고, 구단 창단 후 첫 아시아챔피언스리그도

제주부리는 굵 취급을 하고 있다.

최근 KIA의 우승 주역들이 카퍼레이드에 참가했다.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급조된 광주시의 ‘술가락 엮기’ 행사에 부정적인 시선도 많았다. 한국시리즈 기간에도 시는 응원전으로 생색을 냈지만, 정작 이와 관련한 비용도 KIA가 부담했다. 관중석 의자 교체도 사실 당연한 ‘집주인’의 역할이다. 성적이 부진하거나, 적자 살림일 때는 외면하다가 ‘세입자’가 잘 나다니 ‘집주인’ 행세를 하는 모양새다.

‘시민구단’ 광주FC의 예산 문제도 하루 이틀이 아니다. 심지어 광주시의회는 최근 결산 이유를 들어 ‘패섬죄’로 광주FC의 아첨 지원금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KIA·광주FC를 활용해 자신들을 홍보할 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 VIP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외면하고 있다. 양 팀은 시민들의 기쁨이자 자랑이고, 광주의 경쟁력과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자산이다. 갑질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동행’해야 한다. 시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 /김여울 채육부 차장 wo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瀟洵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에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